

연세대 항쟁성추행 진상규명을 위한 50만 여학우 선언운동

소국통일을 염원하며 9일 낮·9일 밤을 정권의 폭압적인 탄압에 맞서 싸웠던 위용찬 연세대 항쟁을 기억하십니까? 청년 학생들의 그 기백있던 투쟁은 조국 통일 투쟁사에 길이 남을 영웅적인 투쟁이었습니다.

김영삼정권은 군사독재도 감히 해내기 어려운 살인적이고 폭압적인 군사적전을 방불케하는 진압작전으로 우리의 동지들을 연행, 구속해 갔습니다. 거기에 부족하여 마치도 이국의 침략군대가 우리의 아녀자에게 그랬듯이 마치도 위안부를 다루는 일본군대처럼, 주한미군의 야수적 만행처럼 그렇게 우리 여학우들을 유린하였습니다. 누가 이들에게 우리 여학우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하고 유린할 권리를 주었습니까!!

연대항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으며 끝낼 수 없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의 고통을 함께 나누던 동지들이 지금 나의 곁에서 함께 투쟁하고 있고 아직까지 풀려나오지 못한 동지들이 있기에 우리의 투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김영삼정권의 죄악은 연세대로 끝나지 않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뛰고 있습니다.

97년을 맞이하면서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애국 민중들은 김영삼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쉼없이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민중들의 투쟁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김영삼 정권과 미국은 광폭한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민중들의 투쟁의 의지를 꺾어보려고 안달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병원노련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우리 여성 노동자들을 성추행 했으며 연일 많은 학우들을 연행해가고 그들을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며 옷을 벗겨놓고 조서를 받는 등 탄압은 더욱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정권의 비인간적인 탄압 앞에서 투쟁하지 않고 주저한다면 제2의 권인숙 양성고문 사건이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동지애적의리로 50만의 투쟁이 아니라 백만의 투쟁을 일구어 가야 합니다.

이제 연대항쟁을 말로만 기억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투쟁전통으로 남겨질 연대항쟁이라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전상을 규명해내고 살인적진압을 자행한 김영삼정권과 그의 하수인 경찰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투쟁으로 힘있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연대에서 성추행당하고 정신적 후유증까지 가지면서도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우리 동지들에 대한 마지막 의리일 것입니다.

야수적인 진압도 부족해서 여학우들에 대한 엄청난 언어폭력, 성추행으로 까지 탄압을 벌여왔던 반인륜 패륜정권 김영삼정권에 대한 분노의 적개심으로, 그리고 고소했던 7명만의 투쟁이 되지 않게하겠다는 결의가 무색하게도 진정 동지애로 책임지지 못했던 우리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더 높은 결의로 연대항쟁성추행투쟁을 벌여가야 할 것입니다.

민족사적 전환기를 개척하는

▼ ▼ ▼ ▼
3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 전/여/대/협/이란?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박혀있는 성차별의식인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자본주의의 속성인 성의 차별화는 대학사회에서 조차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한 개인의 힘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순의 고리를 보다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힘으로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기 위해 전국의 총여학생회가 연대를하여 건설한 조직이 바로 전여대협이다.

//89년 건준위 1기부터 95년 출범후 3기까지 전여대협의 역사를 짚어보자.

87년 서울 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발족 이후 각 지역 여대협 발족

88년 매출 올림픽 반대 투쟁. 주한 미군철수를 중심으로 AIDS추방 운동

89년 평양 축전 제7센터 참여 및 민족 통일 여학생단 조직, 활동.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설 준비 위원회 결성

90, 91년 전여대협 간부 수련회. 취업차별 철폐투쟁. 지속적 지역 교류 사업

92년 김보은, 김진관 석방 투쟁. 성폭력 특별법 제정 투쟁. 전여대협 제1기 통일 선봉대 활동

93년 윤금이씨 살해 미군 처벌 투쟁.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 본부 공동 발족

94년 양애리 학우 구명 운동. 전여대협 제2기 통일 선봉대 활동.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 가입

95년 제1기 전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건설. 제3기 전여대협 통선대 활동.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전여대협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성폭력 상담 요운학교로 학내 성폭력 근절 운동 전개

96년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 5.29 수요 집회 전국 집중 투쟁. 4기 전여대협 통선대 활동

1. 전여대협의 역사

▣ 건준위 이전의 상황

70년 후반부터 선도적 투쟁이라는 학생운동 전반에 걸친 흐름과 함께 진보적 여학생들이 비합법적 연구 써클을 운영하면서 여성 문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이해하려는 사상적인 모색과 변혁운동에 복무하는 여학생 운동을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였다.

84년 이후 학원자율화 조치로 총여학생회를 건설하면서 여성문제에 대한 신전과 각종 가두 투쟁을 전개하고 여성 노동자들과의 연대투쟁을 통해 여성 해방의 주역이고자 투쟁하였다.

비합씨클노선의 편향을 극복하고 좀더 여학우들과 함께 하는 여학생운동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당시 파쇼 헌법 철폐, 군부 독재 타도 등의 투쟁과 함께 여학생회에서는 모성 보호, 동일 노동 임금, 가족법 개정 투쟁 등 민주 헌법에서 담겨져야 할 여성들의 자주적 삶을 위해 투쟁을 전개하였고 군부 독재 타도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86년 여름 권인숙양 성고문 사건이 발생하자 많은 여학생회 간부들이 구속되는 상황에서도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결성하여 연대투쟁을 전개하였고 그결과 연대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87년 서울지역 여대생대표자 협의회를 건설하게 되었다. 서여대협 발족이후 각지역 여대협의 발족이 속속 뒤따랐으며 명실공히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총체적으로 지도, 집행해갈 조직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끊이지 않았다.

88년도 하반기에는 올림픽 반대 투쟁에 결합하여 매춘 올림픽 반대투쟁을 여성단체들과 공동투쟁으로 벌여내었고, 주한미군부대를 중심으로 AIDS추방운동도 함께 벌였다.

이후 각 지역 여대협은 여학생 운동을 조직적으로 연대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이러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89년 평양축전에 제7센터 참여 및 150여명이 민족통일여학생단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지역 총여학생회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를 건설할 것을 결의하고 전여대협 건준위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

▣ 건준위 결성 이후

89년은 여학생 운동에 있어 질적 전환의 시기였다. 축전 투쟁을 계기로 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운동에 자기 내용을 가지고 복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전여대협 건준위를 발족했다는 것은 그 속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이제 여학생 운동은 전국적 조직을 내어 올 준비를 하고 변혁 운동의 사상에 근거한 여학생 대중운동, 대중투쟁을 벌일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그것을 총화시켜 여성운동, 여학생운동을 정치세력화할 그릇을 만들어낸 것이다.

90, 91년 전여대협 간부 수련회를 거치면서 연대의식이 고양되고 그로 인해 지역단위 결속력이 높아지는 성과를 안아왔다. 92년 김보은, 김진관 석방투쟁을 대대적으로 일궈내면서 사회단체들과 공동투쟁을 전개하여 성폭력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여론화하면서 제도적으로 성폭력을 추방시켜 나가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투쟁 끝에 결국 성폭력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내오게 되었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에 결합하면서 여학우들의 생활적 요구로부터 정치의식을 높여내는 것을 중심으로 넓게는 민주정부의 장 속에서 성폭력의 제도적 제재, 모성보호 으 제도적 보장 등 여성부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총선, 대선 투쟁을 전개하였다.

93년에는 윤금이씨 살해 미군 캐네스마를 처벌투쟁을 벌여내면서 주한미군 문제를 폭넓게 여론화시키고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를 발족시켜내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또한 94년 양애리 학우 석방투쟁을 벌여내면서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지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

적 문제로 환기시켜내었다. 95년을 맞으면서 성, 계급, 민족의 문제가 종체적으로 결집되어진 문제인 정신대문제 해결투쟁을 전국적으로 벌여내면서 역사를 주동적으로 개척하고자 하였다. 95년은 또한 6년의 건준위를 해소하고 제1기 전국여대생대표자 협의회를 건설해내면서 여학생운동의 통일적 사상으로 투쟁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96년 2기를 맞은 전여대협은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을 위한 국회청원 서명운동, 상경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내는 등 자체적인 대중운동의 기반을 축적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 또 전여대협은 기층을 강화하는 것만이 살길이라는 인식 속에서 지역여대협 강화, 과여부 강화를 위한 실사작업, 지도사업을 벌여가고자 노력을 하였다.

■ 97년 3기 전여대협

과제: 올바른 여학생운동의 사상을 정립하고 지역여대협의 자립자활력을 높여내는 것이다. 즉 전여대협의장님과 지역여대협의장님을 중심으로 사상적, 조직적, 실천적 단결을 이루어 내기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

핵심방향: 전략적인 반미자주화투쟁을 지속적이고 가열차게 전개해 나가자.

-주한미군범죄 척결투쟁, 기지반환투쟁 등을 기본으로하여 주한미군 철수의 구호까지들고 나갈 수 있도록 대중의식화를 꾸준히 진행
-생활속에서의 반미를 위해 생활문화운동을 전개해 나가자. (성조기, 영어작힌 웃 안입기등)

김영삼타도투쟁을 힘있게 벌여가자.

-연대항쟁성주행투쟁을 여학단위와 김타도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연대항쟁성주행사건은 김영삼정권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공안탄압의 칼바람속에서 우리의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 이 사건은 이땅 여성들의 자주성을 짓밟는 행위를 극복하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우리 학생들을 책임지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기층민중여성들과의 구체적인 연대 속에서 민중과 함께 하는 전민항쟁의 상을 그려나가자.

조국통일투쟁

-미국의 전쟁책등, 남북대결 음모를 분쇄하고 한반도 내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북미 평화협정체결투쟁을 전개하자.

-이북바로 알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왜곡되어 있는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진정한 민족애를 고양시켜나가야 한다.

-한반도의 악의 근원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해 남북 청년여학도들은 공동투쟁을 결의하자.

-□[속경기 14대 초·여학선수]-

전여대협 출범식 기획안

◎ 전여대협 출범식의 의의, 목표

1. 전여대협이 받아안아야 하는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50만 여학우들의 투쟁의지를 확인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하는 장입니다.
 - 전민항쟁의 주역인 50만 여학우들의 김영삼 탄도의지를 연세대 항쟁 성주행 진상규명투쟁을 통해 하나로 모아내고 더욱 힘있게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장.
2. 전여대협 총회에서 보여준 여학간부들의 열의, 열정을 모아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을 분쇄하고 전여대협, 한총련을 강화하는 길로 모아내는 장입니다.
 - 전여대협 강화는 곧 한총련 강화입니다. 한총련에 대한 정권의 탄압앞에 전여대협 50만 여학우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우대중의 분노를 투쟁으로 분출시켜 투쟁속에서 강화되는 전여대협, 한총련을 만들어갈 것을 결의하는 장입니다.
3. 의장님을 전여대협 50만 여학우의 사상적, 실천적 중심으로 힘있게 옹립하는 자리입니다.
4. 100만이 함께 하는 한총련 출범식 안에서 여학우들의 김타도 의지, 조국통일의지를 과시하는 장입니다.
 - 연대항쟁 성주행 진상규명투쟁, 하바나 축전 참가결의,
 - 류재을 열사 장례식 투쟁 → 여학일꾼들의 모범적인 투쟁. 총회

◎ 기획안

<여는마당>

- 50만 여학우들의 전여대협, 한총련 출범식 참가와 사수의 의지를 높이는 자리
- 사회자 : 총북 서원대총여학생회장
- ① 전여대협 진군과 배우기(노래패 1-2인), 읊동 배우기(서여대협 읊동패)
 - ② 지역별 결의(지역별 대표자, 새내기 1인 조직)
 - ③ 환영인사와 결의(출범식 준비위원장 인사)-서울 동지여대협 대표자 중 1인
 - ④ 서여대협, 혹은 동지여대협 여학일꾼중심으로 문예판-출겁게

<본행사>

- 사회자 : 남여대협의장
- ① 개회사
 - ② 애국의례
 - ③ 축사-한총련의장님 혹은 조통위원장
- 연대항쟁 성주행 진상규명투쟁의 내용을 조금 가미해서 결의세워주시는 발언
- ④ 연대사-한국 여성단체 연합, 전국 여성 농민회 총연합, 주한 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 본부 등
 - ⑤ 문예공연-부경여대협:연세대 항쟁 성주행당시의 상황을 중심으로 극을 준비(부경여대협 출범식에서 공연)
 - ⑥ 전여대협 기간 투쟁 보고-연대항쟁 성주행관련 보고, 정치연설(서여대협의장)
 - 하바나 축전 참가에 대해(왜 참가하는가, 정당성들을 중심으로 발언-부경여대협의장)
 - ⑦ 의장님옹립과 3기 전여대협 출범 선포식-전여대협의 역사를 조명하고 그 속에서 2기 의장님의 축하 인사말
 - 의장님 옹립공연:중앙문예단의 옹립공연(이후 투쟁과제를 형상화하는 내용과 결의 등)
 - 옹립공연을 누가 할 것인가...
 - 의장님 옹립 및 결의의 말 및 출범 선언문 낭독

◎ 물품판매

- 연대항쟁 성주행 진상규명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티셔츠 판매, 정신대 할머니 엽서, 두레방 빵판매

- 미숙여기 14대 초. 축사 -